

# 목포시·신안군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경쟁 치열

### 전남도 건의 설립... 전남 유치 유력 '섬의 수도' '섬 정책 선진지' 내세워 8일까지 공모 마감... 내달 최종 결정

목포시와 신안군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목포시와 신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섬정책 연구기관인 '국립 한국섬진흥원' 후보지 공모가 오는 8일 마감이다.

광역시지자체가 2개 이내 후보지(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신청하면 균형발전, 입지여건, 섬 발전 정책 사업과의 연관성, 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심사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최종 설립지역을 결정하고 8월께 정식 출범한다.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3일 8명 50여명 규모이며, 섬에 대한 조사·연구와 관리·보전·진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섬진흥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5년간

생산유발 효과 407억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목포와 신안, 경남 통영과 남해, 충남 보령, 인천 옹진 등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역 공모는 전남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남 기초단체 중 어디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대한민국 섬의 수도'를 표방하는 목포시와 '섬 정책 선진지'를 내세운 신안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섬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했다.

추진위는 서남권 섬의 관문이자 연구기관·섬 관련 단체가 집적화된 '대한민국 섬의 수도'인 목포에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H자축 환황해권 국가발전전략의 거점도시

로 호남-충북-강원-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강호축의 출발점이며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국도2호선(목포-부산)의 기점이면서 철도, 고속도로, 공항·항만 등 완벽한 광역 및 지역 연계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이 국가 중장기 섬정책 지원 허브기관으로 '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했다며 기득권과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안군은 한발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박우량 군수는 이날 공식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안군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섬 정책 역사를 새로 써 온 누구냐 인정하는 '섬 정책 선진지'이기 때문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한 신안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일제 통치수단이었던 야간 여객선 운항 금지를 철

폐하고 100년 만에 야간 여객선 운항을 최초로 현실화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2019년부터는 '여객선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 정책인 '1000원 여객선'을 역시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민들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수차례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신안군처럼 하라"고 찬사를 보냈다.

신안군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섬의 자원과 자산을 디지털로 정형화해 활용하는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을 정부에 제안,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섬이 가장 많다는 약점조차 '천사(1004)섬'이란 브랜드 마케팅으로 성공시켰다. 섬이 번방의 보잘것없는 곳이 아닌 예술의 진원지로 거듭나게 만드는 신안군의 '섬 예술정책'은 CNN과 폭스뉴스 등 세계 유수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박우영 목포신협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의장 표창



박우영 목포신협총조합 이사장이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에서 민주평화통일 의장 표창(대통령령상)을 받았다.

박 이사장은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장을 맡아 지역 발전과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통일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한 공로다.

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신안 지역민들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신안군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지역 사회 단체와 '공동체 상생협약'을 맺어 집 고쳐주기 등도 전개하고 있다.

목포신협은 경영평가 1등급, 높은 출자 배당금, 조합의 안정적 운영 등으로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협회로부터 '소비자 친화경영 부분 금융협동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 활전복 2t 대만 수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첫 실적

완도 활전복 2t이 대만 수출길에 올랐다.

완도군은 지난 2일 지역에서 생산된 활전복 2t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적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첫 수출로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립된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연면적 2521㎡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을 도입했으며 수조동과 냉동·냉장실, 급속동결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시설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정정해역에서 자란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이 앞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기를 희망한다"며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은 지난 2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활전복 대만 수출 선적식을 했다. <완도군 제공>

### 무안군 만학도 장학금... 1인당 54만원

무안군은 늦은 나이에 학업에 매진하는 만학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무안군은 전남지역 중등학력 인정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무안군은 올해 40여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무안군은 지난해부터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18명의 학생들에게 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시기를 놓쳤다고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학력 취득에 도전해 달라"며 "군민이 폭넓은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제1회 국립공원의 날 맞아 7일까지 주간행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다도해공원 탄소 줄이기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제1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오는 7일까지 국립공원 주간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 2018년 국립공원 홈페이지와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을 수렴, 3월3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의 날은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날로, 국립공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다도해 서부사무소는 국립공원의 날 주간행사로 정부 정책인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흑산도·홍도 등 주요 거점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캠페인과 탄소흡수 식물 키트를 나눠주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임철진 다도해 서부사무소장은 "법정기념일인 제1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 공립어린이집 3곳 개원

무안군은 지난 2일 일로읍 오룡지구에 공립어린이집 3곳을 개원했다.

공립어린이집은 푸르지오 1차·2차 아파트 단지, 호반써밋 3차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며 총 201명의 영·유아가 입학했다.

입학식과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앱인 줌(Zoom)을 통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무안지역 어린이집 전체 휴원으로 급급하게 가정 돌봄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오룡지구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주체 간 시설 사용 계약 체결, 운영 위탁자 선정,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자체 재원을 마련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를 했다.

이번 어린이집 개원으로 무안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5.6%에서 10.5%로 높아졌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